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7월 9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9회

· 제1호의 안 : 일본 및 몽고방문 대표단 구성 승인의 건

- 대표단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2호의 안 : 잡지 수익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안) 승인의 건

- 잡지 수익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협의키로 하고 유보함

· 제3호의 안 : 97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97년도 예산편성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결의함

위원장-류근열 부회장, 부위원장-이의구 서울건축사회 회장, 위원 - 김광욱 이사, 이관영 이사, 이종관 이사, 임인혁 이사

· 제4호의 안 : 부산건축사회 직원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우리협회 대표단 몽골건축사회 방문

우리협회 몽골방문대표단이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몽골건축사회를 방문한다. 박경환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광욱 김동준 송인창 이사, 김영석 감사, 김지덕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가한 몽골방문대표단은 방문기간중 환영식과 간담회를 통해 몽골건축사회 대표자들과 양국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북트간 궁전 등 몽골내 주

요건축물과 명승지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지난 91년에 ARCASIA회원국에 가입한 몽골은 우리 협회와는 94년 12월 한·몽교류 가협정 체결이후 상호방문을 통해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다져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한·몽간 우호증진과 건축기술정보 교류를 위해 양국 건축사회가 상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몽골건축사회측 대표단이 우리협회를 방문, 양국사업계획서를 체결하고 창립3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96건축사자격시험 총 3,344명 원서접수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특별전형 응시자 12명을 포함해 총 3,344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22일에 시행되며 시험장소 및 시간은 9월 12일에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이번 시험에서 일반전형 응시자는 건축법규(객관식 선택형)와 건축설계(실기) 등 2개 과목을, 특별전형 응시자는 건축계획(객관식선택형)과 건축구조(객관식 선택형) 2개 과목을 시험보게 된다.

「건물하자에방대책」안내책자 발행

우리 협회는 부실건축물 추방의지와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기대를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구조진단을 통해 본 건물하자에방대책」이란 안내책자를 발행, 회원과 관련단체, 대학 등에 배포하였다. 이 책은 건축구조물 안전진단업무 내용을 수집, 조사·분석하여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설계·시공상 잘못 제시된 하자의 보수보강 방법을 분류하고, 설계·시공·감리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들을 지적, 열거함으로써 특히 회원들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꾸몄다.

「에너지절약형 핸드북-공동주택편」발간

『에너지절약형 핸드북 제4권 - 공동주택편』이 발행되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 협회 건축설비위원회가 발간한 이 연구서는 공동주택의 설계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에 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설계방법과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난 90년 이후 제1권「주택편」을 시작으로 제4편「판매시설편」이 발간되는 동안 본서는 건축설계에 따르는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에 대한 인식 및 실무능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특히, 금년에 발간된「공동주택편」은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주거용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기술과 설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긴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 세계건축가연맹 이사국 진출

우리나라가 지난 75년 이후 만21년만에 UIA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지난달 21일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7월 1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20차 UIA(세계건축가연맹)총회에서 제4지역(아시아 태평양)이사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 한국이 속해있는 제4지역에서는 일본인건축가 렌 스즈키(Ren Suzuki)씨가 부회장에, 우리나라의 조재원(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의 국제건축가연맹 이사국은 모두 20개국이며 제4지역이사국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이다. 이번 이사국 진출은 세계무대에서의 한국건축의 위상신장은 물론 우리건축이 세계무대 한 가운데서 더욱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UN 등 세계기구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UIA는 세계 건축가들의 통합단체로 현재 150개국의 회원을 두고 회원국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외에 국제 설계표준화·교육제도의 설정 작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또 세계 각지역의 건축 및 도시발전 계획과 관련해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다.

서울도심 주상복합건물 「높이제한」 완화

앞으로 서울도심 재개발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최고용적률이 현행 1천%에서 1천2백2십%까지 늘어나며, 늘어난 용적률 범위내에서 층고제한이 30층내외이던 지역은 추가로 20층까지, 20층제한지구는 13층안팎까지, 10층제한지구는 7층내외씩을 각각 더 높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 7월25일자 47면기사 참조)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8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해 주거복합형태로 짓는 건물에 대해 용적률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추가로 허용되는 층수의 높이가 50m를 초과할 수 없고 건물전체 높이로는 30층제한지역의 경우 50층까지라도 그 높이가 1백60m를 초과할 수 없다. 또 20층 제한지구는 전체건물높이가 1백50십m, 10층지구는 1백m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늘어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한편 세운상가와 동대문운동장 주변지역은 도심과밀개발을 막기위해 층고제한규정이 30층에서 20층으로 강화됐다.

〈주상복합건물 높이규정〉

높이제한	지역
160m이하 (50층 내외)	서린 무교다동 을지로 1, 2가 소공 소공4 명동 서소문 광화문
150m이하 (33층 내외)	도림 적선 세종로 신문로 신문로 2 청진 공평 장교 세운상가 세운상가 2,3 회현 남대문 북창 양동동자 서울역~서대문
100m이하 (17층 내외)	내수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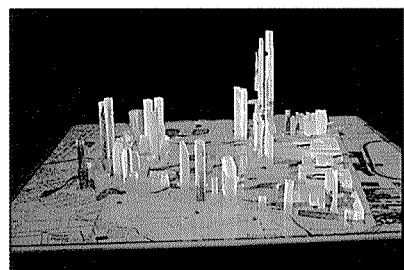
건설분야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지난 7월 10일 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대강당에서는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 등 6개 관련단체가 후원한「건설분야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건설분야의 표준화란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 설계, 자재나 부품 상호간에 치수나 성능, 방법, 순서 등에 관한 공통된 약속이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분야에서 표준화

가 정착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 및 이익과 편리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건설분야의 공업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총 4부로 나누어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우리나라 표준화 실태 및 장단기 추진전략, 제3부 해외 표준화추진 선진사례 및 제언, 제4부 종합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건설기술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2부에서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실 김수암 실장, 대한주택공사부설주택연구소 박준영 팀장의 발표와, 3부에서의 Jan Delrue(ISO TC 59 SCI의장, Katholieke Leuven대학 교수, 벨기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수와 임원들의 토론회로 이어진 4부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계의 문제점들을 다시 인식해 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4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를 마감했다.

(주)공간, 방콕 출라롱콘대학 마스터플랜 수주

(주)공간건축사사무소가 태국의 출라롱콘왕립대학 주변 30만평 재개발계획을 수주받았다. 지난 7월3일 (주)공간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미국의 SOM과 KPF 그리고 일본의 Nikken Sekkei 등 세계 유수의 설계회사들과 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 5월말 출라롱콘대학측이 최우수 설계회사로 공간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건축주인 출라롱콘왕립대학은 태국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라마 5세왕에 의해 개교되었는데, 역사적·문화적 중심대학으로서 21세기 방콕의 얼굴을 재구성한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젝트는 40ha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태국문화연구원, 병원, 과학테마공원, 사무실, 백화점,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되며 그중에서도 불교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층 높이의 초고층 복합문화건물은 공간이 주도하는 작업중 주요부분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공간은 앞



마스터플랜 모형도

으로 프랑스의 GIE-VNF사, 태국의 TESCO사와 컨서시움 형태로 도시설계와 건축설계를 맡게되었다.

서울시신청사 동대문운동장 등 4곳으로 압축

서울시 신청사 부지가 동대문운동장, 독섬, 보라매공원, 용산 등 4곳으로 압축됐다. 서울시는 9일 시민의 접근성이 높고 주변지역의 부수적인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들 4곳을 후보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8월중 신청사건립자문위의 1차 검토와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10월 신청사건립자문위의 2차 검토를 거쳐 11월 청사부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97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고 98년 기본 실시설계를 마친 뒤 99년 착공해 2003년 완공할 예정이다. 청사부지가 확정되면 인근지역은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추가개발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들 후보지들이 부지면적 2만5천평 이상에 연면적 4만~6만평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국·공유지로 토지보상비 부담이 적고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대 건축대학원, '96 건축설계교육 포럼 개최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는 오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 양평 대명콘도에서 '한국 현실에서의 건축설계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96 전국 건축설계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행사가 전반적인 설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던 데 비해 특히 올해의 포럼에서는 현재 각 대학에서 설계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 건축사와 건축관련학과 대학교수들이 초빙되어 설계스튜디오 교육프로그램에 담긴 철학과 방법론, 진행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담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계교육 포럼에는 건축사나 교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 경기대 건축대학원 /
전화 390-5245~6

제5회 건축가미술전 개최

건축가미술동호회(회장 한창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대치동 플러스사옥내 화랑에서 회원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회화, 조각, 사진, 판화 등 여러 작품들이 선보일 이번 전시회를 위해 동호회 측은 현재 회원 및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중에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미술동호인들은 오는 9월 5일까지 1인 3점 이내에서 작품 슬라이드 1매와 출품자 사진, 약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집 제작비를 포함해 1인당 참가비는 정회원이 15만원, 신입회원 3만원(가입비 별도)이다.

문의 : 562-4414, 542-9708

한국 인테리어디자인대전 작품상 수상작 발표

가인디자이너그룹 / 주간 '인테리어'가 국내 인테리어디자인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주최한 제9회 한국 인테리어디자인대전 작품상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총 217점이 응모한 이번 대전에서는 안유경, 조정규(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실내환경디자인전공 4학년)의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대전은 민영백(민 인터내셔널대표, 위원장)씨등 총 5명의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맡아 주제, 계획, 독창성, 실현성, 표현방법 등 5개 항목에 걸쳐 중점적으로 심사를 벌였다.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전통복식의 조형미를 바탕으로 한 복식 미술관」으로 이용자의 형태에 따른 디자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였으며 특별히 전통복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대상작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은 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여 받았으며 수상작들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전시되었다.

제1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작품공모

지방화시대를 맞아 문화적 가치가 우수

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건축문화를 창출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1회 경기도 건축문화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준공 건축물부문과 대학 건축전공 학생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의 계획설계작품을 대상으로 한 계획작품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과 10월 부문별로 작품을 접수한 후 10월 30일에 시상식을 갖고 이후 12월 14일까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등 5개지역에서 순회전시회를 열게 된다. 이번 공모전의 일정 및 응모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95. 1~'96. 8. 30 준공된 도내 건축물)

·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장의 추천작품

· 문화상 제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의 추천작품

·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개별 접수된 작품

- 계획작품부문(이전 국내의 공모전에서 입상된 작품은 제외)

· 도내 소재 대학(대학원·전문대 포함) 건축전공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작품

·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로서 관계건축사의 추천작품

●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1차접수 :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8"×10"사진 10매 및 기본도면 수록)2부와 출품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간이소개서

· 2차접수 : 1차심사 통과 작품에 한해 패널 제출(해당작에 한해 추후 통보)

- 계획작품부문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100cm×100cm) 1점

· 작품설명서 1부 제출

· 공동작품의 경우 작가명칭은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작품접수 및 문의

- 준공건축물부문

· 접수기간(1차) : '96. 9. 9 ~ 9. 14

·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수원 장안구 파장동 556-1, 전화 47-6129~31)

- 계획작품부문

· 접수일 : '96. 10. 23(수) 09:00~18:00

· 접수처 :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3-12, 전화 32-3632)

· 작품응모신청서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

● 수상작 발표 및 시상 : '96. 10. 30(수)

● 시상

- 준공건축물부문(설계자)

- 대상 1점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금상 1점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은상 1점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동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각 입상작의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건축주에게는 상패 및 기념동판 수여)

- 계획건축물부문

- 대상 1점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금상 1점 : 상패 및 상금 150만원
- 은상 1점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동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제3회 건축CAD학생작품 공모전

제3회 건축CAD학생작품공모전이 (주) 건캐드, 건축CAD기술연구소의 주최로 열린다. 학생들의 CAD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적인 기술습득으로, 미래 국내 건축CAD분야 기술발전에 큰 토대를 마련코자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94, 95년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을 CAD/C.G를 이용해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주제로 정하였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건축과 학생으로 팀당 인원제한 없이 단독 혹은 공동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작품마감은 9월 16일까지이며, 대상 1팀과 렌더링(판넬)부문 4팀, 애니메이션(비디오)부문 4팀을 각각 선정,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문의 : 캐드클럽 598-2226~7

「세계투시도展」 첫 서울개최

한국투시도작가협회(회장 강병선)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중구 정동 문화일보사 갤러리에서「건축투시도 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작가전과 국내작가전으로 나뉘어 열리는 데 세계전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내작가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각각 열린다. 특히 그동안 미국에서만 열려왔던 세계전이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어 건축관련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세계전에는 16개국 투시도 작가들의 작품 6백여점중 엄선된 52점이 전시되며 국내전에서는 우리 작가들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건축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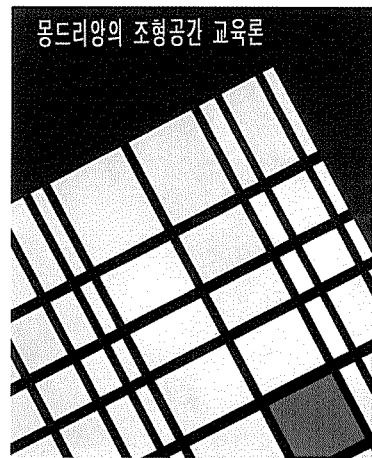
● 몽드리앙의 조형공간 교육론

근대건축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De Stij와 함께 미술과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몽드리앙의 조형공간론에 관한 저서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교육이 이미 틀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사고들을 제한하는 형태위주의 창작이라는 데에 문제를 두고 있다. 이 글에서 몽

● 포커스 / 지금 북한에선...



북한 함경북도 나진시내 중심가 복합건물의 아파트 일부 — 건물내에는 상점, 목욕탕, 미장원, 유아원,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다. ('96. 6. 27촬영 / Minolta 700SI 24~85mm)
사진제공 : 한중연 회원(중합건축사사무소 금성 대표)



드리앙은 그간의 조형교육이 행태론적 관점에 서있음을 비판하고 새로운 조형방법론을 펴 보인다. 또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형태의 일반원칙하에 구성가능한 요소들의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미적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책은 또 몽드리앙이 끝내 실현시키지 못한 조형교육론의 보충이자 그의 조형사상과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충실한 해설서이기도 하다.

김현철 지음 / 국판변형/103쪽/9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